

제5강 미국의 모더니즘

(1~4교시)

2차대전 이후 현대미술은 그 중심지를 유럽에서 미국, 즉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기게 된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피폐하게 되었고 이에 반해 미국 신대륙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쟁의 와중을 틈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전쟁을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피하는 인구가 많았고 그중에는 내노라 할 석학들과 예술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의 종료를 기점으로 현대미술은 뉴욕에 기반을 둔 미술가들에 의해 주도된다.

미국 예술이 유럽을 베끼는 데서 벗어나 문화적 자의식을 획득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바로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다. 그가 없었다면 그 유명한 잭슨 폴록도 지금쯤 아예 존재가 없거나, 아니면 미술사의 후미진 귀퉁이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폴록의 등장은 미국의 작가가 세계적 중요성을 띠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추상표현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예술은 밖의 영향을 받는 데서 벗어나 밖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선다.



<잭슨 폴록-연보랏빛 안개>

칸트는 형식에서 예술의 본질을 찾았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술 작품이 굳이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진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이러한 칸트주의 미학에 입각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쳐 나간다.

칸트의 형식미학으로 추상표현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칸트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예술의 본질을 찾았지만, 그가 예술의 가상성 자체를 부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 칸트에게 아름다움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형식”, 즉 내용이 없으면서도 ‘마치’(as if)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의 가상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칸트는 아직 ‘형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나, 폴록은 형 자체를 파괴하여 화폭을 무정형의 카오스로 돌린다.

과거에 회화가 대상을 탐구하고 모방했다면 모던에서는 회화가 회화 자신을 반성하고 탐구한다. 그린버그는 왜 폴록에 주목했을까? 아마도 그의 작품이 회화라는 매체를 물감 바른 평면으로 되돌렸기 때문일 게다. 그린버그가 보기에 모더니즘의 본질은 형식주의에 있다. 이 형식주의는 크게 두 가지 원리 위에 서 있다. 공간의 환영을 포기하고 회화의 세계가 2차원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평면성’의 원리. 그리고 회화가 그림 밖의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자기 지시’의 원리.

1910년에 파울 클레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연과 자연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구통 속의 내용물에 대한 화가의 태도다.” 폴록의 작품은 글자 그대로 “화구통 속의 내용물에 대한 화가의 태도”만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서 물감은 물감일 뿐, 그 밖의 대상을 표상하지 않는다.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작품은 당연히 환영적 깊이가 없는 평면, 즉 물감 칠한 캔버스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개념은 협소하기 그지없다. 그 개념에 따르면 ‘모던’은 오로지 칸딘스키, 몬드리안, 파울 클레, 잭슨 폴록, 바넷 뉴먼과 같은 작가들로 축소된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속에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실제로 그린버그는 초현실주의를 불순한 것으로 보았고, 뒤상을 진지하지 못한 장난으로 간주했다. 그런 그가 앤디 워홀을 평가할 수는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린버그에게 모더니즘의 본질은 한 마디로 자기 지시성, 즉 회화가 자연이나 현실에 대한 탐구(=재현)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순수한 형과 색의 조형적 잠재성)을 전개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더니즘 전체의 기획을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록 자기 지시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평면성과 표현수단의 자립화가 모더니즘의 특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더니즘의 추동력 자체를 이루는 요소인 것은 아니다. 모더니즘은 칸트주의가 아니고, 모더니스트들은 칸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린버그는 뒤상을 진지한 예술가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린버그의 틀로도 실은 뒤상의 의의를 설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과거의 화가들이 회화라는 수단으로써 바깥의 자연과 현실을 탐구했다면, 현대의 화가들은 회화라는 수단으로써 회화 자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마찬가지로 뒤상의 오브제 전략은 예술을 통해서 하는 예술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다.’ 이런 식으로 뒤상의 전략 속에서 자기 지시성을 꼬집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린버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칸트의 형식미학의 선입관에서 자기 지시성을 오로지 ‘평면성’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바넷 뉴먼-하나>



<그림을 제작하고 있는 잭슨 폴록>